

사회 >> 3면

北 오물 풍선으로 고조된 한반도... 남북 '딜레마'

기획 >> 4면

부활한 대학가요제, 울려 퍼진 서경인의 목소리

현장르포 >> 5면

도파민 해방일지, 기자들의 디톡스 챌린지

제581호

2024년 11월 14일(목)

서경대 풀잎봉사단, 중복 맞이 어르신 대상 '해신탕 나눔' 행사 실시



서경대학교 풀잎봉사단은 지난 7월 20일,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음은 따뜻하게 몸은 시원하게 여름나기' 해신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에는 서경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 풀잎봉사단을 비롯한 재학생 및 졸업생과 교직원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복지관에 모인 봉사자들은 사랑봉사회와 사회복지학과 실습생들의 안내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해신탕을 만들었다.

행사 당일 오전 9시에 모인 봉사자들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해신탕 재료를 손질하는 조와 해신탕에 들어갈 닭 속을 채우는 조, 주방 업무를 돕는 조로 나뉘어 작업을 시작했다. 조리 전 위생을 위해 모두 헤어 캡, 앞치마, 마스크, 위생 장갑을 착용한 뒤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봉사자들은 사랑봉사회와 실습생들의 지도 아래 닭 속에 들어갈 인삼, 대추, 마늘, 밤 등을 손질하는 한편 싱싱한 전복을 솔로 깨끗이 닦았다. 사랑봉사회가 준비된 재료로 해신탕을 팔팔 끓이는 동안 봉사자들은

콜스카프, 부채, 손수건을 포장해 폭염 대비 키트를 제작했다. 해신탕이 완성되자 용기에 포장한 다음, 폭염 대비 키트에 더해 정성스럽게 작성한 손편지를 동봉해 마음을 담았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해신탕, 폭염 대비 키트와 함께 봉사자들이 작성한 손편지가 배달됐다.

봉사자들은 조별로 지정된 가정에 방문해 해신탕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르신들에게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돌봄 서비스 개선 사항을 물었다.

"건강은 괜찮으시나", "불편한 거나 필요한 건 없으시나"는 봉사자의 물음에 김 할머니는 "필요한 건 없고, 맨날 챙겨줘서 감사하지. 한여름에 해신탕 끓여서 갖다주느라 고생했다"며 "맛있게 잘 먹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행사는 조별로 일손을 나눠 진행된 덕에 금세 끝났다. 배달 후 복지관으로 복귀한 봉사자들에게는 든든한 점심 식사로 해신탕 한 그릇과 간식

이 제공됐다.

만족도 조사 결과, 봉사자들은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서 참여자들과의 소통과 연대감을 느끼게 해 주는 시간이었다"며 "보양식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었지만, 직접 어르신을 찾아보는 경험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음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사회 취약계층 이웃의 어려움과 불편에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계획된 봄 김장과 여름 해신탕 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풀잎봉사단은 겨울을 앞두고 김장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부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한 서경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와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ZOOM UP



그림 같은 풍경, 청명한 가을 하늘

송민경 기자

서경대학교, 2024학년도 진로캠프 및 취업캠프 개최 및 성료

지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경대학교 유담관 Co-Working Space에서 서경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Meet Career 진로 캠프'가 개최됐다. 27일과 2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서경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Career Jump Up 취업 캠프'가 진행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주관으로 운영된 두 캠프는 재학생들의 취·창업 역량 증진과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에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진행된 진로 캠프는 진로 불확실성에 대비한 진로 설계와 건강진로 탐색을 위해 기획됐다.

캠프 1일 차에는 참여자들이 그룹을 이뤄 진행한 진로 보드게임을 통

해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는 시간과 기업 프로세스 체험 게임을 통해 직무 성격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2일 차에는 커리어 로드맵 작성법을 공부한 다음, 자체 경진 대회를 통해 우수자를 선정한 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에게 총 5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다소 진지하고 무거울 수 있는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을 모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의 형태로 기획했다는 점, 재학생뿐만 아니라 진로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취지가 돋보였다.

다음 날 진행된 취업캠프에서는 분야별 현직자를 대동하여 더욱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기획

됐다. 1일 차에는 △채용 트렌드 분석과 직무별 핵심 키워드 이해 △직무 역량 중심의 입사지원서 작성 및 컨설팅 △1분 자기소개 스토리라인 설정과 스피치 전략 강의가 준비됐다.

2일 차에는 경영 지원, 영업·마

케팅, IT 개발 분야의 현직자와 쌍방향 소통을 통한 멘토링 시간을 가진 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면접 실습과 피드백을 진행했다. 그 후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자를 선발해 시상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분야별 현직자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해당 분야에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해당 캠프의 의의가 분명해 보였다.

4일간 진행된 진로·취업 캠프를 통해 재학생은 진로 설계와 탐색의 기회를, 졸업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은 현직자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서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 될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kyhu@naver.com)

사 령

11월 14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면합니다.

- ▶ 면 수습기자 이재근 (문곤 19)
- ▶ 면 수습기자 박상현 (전컴 23)
- ▶ 임 수습기자 김소희 (소웨 22)



또 한번의 여름,
 비눗방울처럼 반짝이는 순간들

서경대학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 위한 산학협력 체결... 실용 인재 양성에 힘써



▲ 출처: 서경투데이

지난 5월 28일, 서경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식회사 뷰티라운지, 브이오지코리아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경대학교 김범준 총장, 박은준 계약학과 헤어디자인 학과장, 이인희 계약학과 코스메틱&뷰티테라피학과 교수, 주식회사 뷰티라운지와 브이오지코리아 측근들이 참

석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란 대학과 기업의 협약에 의해 대학 교육과정 에 기업의 맞춤형 실무 교육과정을 도입, 인재를 선발, 교육한 후 졸업 시에 기업이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정원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출처: 포인트데일리]

해당 제도는 맞춤형 실무 교육과정을 통해 차별적 특화 교육을 제공

하고, 경쟁력 있는 미용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업은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을 채용함으로써 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생은 즉각적인 취업을 보장받아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윈-윈 효과를 가져다준다.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경대학교는 정원 20명의 '코스메틱뷰티매니지먼트학과(뷰티라운지반)'과 '헤

어디디자인학과(보그헤어반)'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수시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주식회사 뷰티라운지와 브이오지코리아는 학생들에게 4년차 등록금 50% 이상을 지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앞서 같은 달 11일에도 피에스씨 네트워크, 커커 주식회사와 동일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와 동일하게 정원 20명의 '헤어디자인학과(박승철헤어반, 이철헤어반)'을 신설해 창의적 실용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또 전공 외에 외국어 및 다문화 교육, 사회봉사,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서경대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는 100%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출처: 대학알리미]

기업체와의 산학협력 체결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세부 전공반)이 다양해짐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발전시켜 더욱 우수한 경로를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2024년 2학기 생활관 개편,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4년 2학기부터 생활관의 시설 및 비용이 일부 개편됐다. 지난 7월 교내 홈페이지에 게시된 생활관 선발 모집 공고에 따르면 신규 변경 사항에는 △신축 생활관 입주 △생활관비 신규 책정 및 인상 △생활관비 책정 계산 방식 변경 △장기 입주생 신규 선발 △여자 5동 냉장고 신규 비치 △신청 방법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은주관 7층에 신축 여학생 생활관(1,2인실)이 입주했다. 기존 4인실과 6인실뿐이던 여학생 생활관에 장기 입주생을 대상으로 한 2인실이 신축돼, 졸업 시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학기부터 신규 선발된 장기 입주생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졸업 학기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종료일 1개월 이내 지정 기간까지 매 학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관 비용과 책정 계산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물가 상승과 생활관 환경개선의 목적으로 생활관비를 신규 책정해, 호실 환경에 따라 1일 기준 7,000원~13,000원까지 인상됐다. 이에 더해, 생활관비 책정을 기존 월별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일수 계산 방식'으로 변경해 계산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여자 5동 생활관 모든 호실에는 냉장고를 신규 비치해 학생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생활관에 거주하는 경영학부 A 학우는 "지난 학기까지는 냉장고 렌탈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냉장고가 새로 설치된 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서경대 '2025 수시 모집 요강 공개'... 스콘칼리지 아닌 미래융합대학

2025학년도 서경대학교 수시모집요강(안)

힘, 에너지, 사회, 꿈, 능력, 영향력, 디지털, 창조

내 몸은 소용, 요철과 등의 이유로 수형사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즉시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되오니 입학일수 전 수형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서경대학교

▲ 출처: 서경대입학처

서경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요강(안)'이 지난 5월 31일 공개됐다. 모집 요강에는 모집 단위 및 인원, 전형 일정, 지원자 유의 사항과 전형별 안내 등이 담겼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집 단위 중 미래융합학부1, 미래융합학부2,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된다. 기존의 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소프트웨어학과, 금융정보공학과, 물류시스템공학과는 미래융합학부1로 개편된다. 공공인재학부, 아동청소년학과, 나노화학생명공학과, 전자컴퓨터공학과, 도시공학과, 토목건축공학과는 미래융합학부2로 개편된다.

모집 인원은 미래융합학부1(333명), 미래융합학부2(311명), 자유전공학부(76명)이다. 변경 사항으로 군사학과는 기존 50명에서 10명을 줄여 40명을 모집한다. 코스메틱&뷰티테라피학과는 학과명을 코스메틱뷰티매니지먼트학과로 변경한다.

또한 어학특기자, 교과우수자, 일반학생 전형을 폐지하고 논술우수자, 교과우수자1, 교과우수자2 전형을 신설한다. 논술우수자는 기존 교과 30%에서 10% 반영으로 반영 비

율을 줄이고, 논술고사를 90%로 대폭 늘렸다.

2025학년도 미래융합학부1·2와 자유전공학부 입학생들은 입학 후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친 뒤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은 미래융합학부1·2 내 모든 전공 선택이 가능하나 미래융합학부1·2 신입생은 소속 학부에 있는 전공만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입학 전, 1학기 수료 시 주요 조사를 걸쳐 2학기 수료 전 희망전공을 지원한다. 확정 전공은 동계 방학 중 안내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공개된 모집 요강을 통해 무전공제(전공자유선택제)가 도입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학교는 긴급 전학대회, 총장과의 면담, 학사 구조 개편 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학우들은 무전공 선발 확대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다. 학우들의 건의로 단과대학 및 신설 학부 명칭이 변경됐으며, 현 미래융합학부 1·2로 수정된 것을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vd@skuniv.ac.kr)

서경대, 성북구 정릉 4동 어르신 장수 사진 행사 공동 주최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주민센터는 지난 5월 23일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서경대학교와 공동주최로 '웰다잉(Well-Dying) 장수 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살아온 날을 돌아보며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행사는 각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정릉 4동 주민센터가 사진 준비를,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은 사진 촬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했다.

서경대학교 학우들은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의 헤어 및 메이크업을 담당해 아름다운 사진이 찍힐 수 있도록 도왔다. 이에 서경대학교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재능기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은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정릉4동 주민센터와 서경대학교,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수습기자 (pasahy@skuniv.ac.kr)

한 눈에 보는 이슈

<p>정치</p> <p>北 오물 풍선으로 고조된 한반도... 남북 '딜레마'</p>	<p>경제</p> <p>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인가?</p>	<p>사회</p> <p>연이은 군 사망사고 보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p>	<p>문화</p> <p>놀이 시간 없는 어린이, 놀 곳 없는 중고생... 대한민국 청소년은 행복하고 싶다</p>	<p>연예</p> <p>인천공항,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대응 매뉴얼 마련</p>	<p>스포츠</p> <p>유인촌 문체부 장관 "축구·배드민턴협회 감사 9월 내 마무리"</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北 오물 풍선으로 고조된 한반도... 남북 '딜레마'



▲ 출처 : MBC뉴스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7월 24일까지 열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로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최근에는 올해 들어 30번째 오물 풍선을 날렸다. 내용물은 거름, 종이, 담배꽂초 등 각종 쓰레기로, 안전 위해 물질은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오물 풍선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물 풍선은 지름 약 3미터의 거대한 풍선과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로 구성됐다. 일부 풍선에는 풍선을 터뜨리기 위한 기폭 장치가 부착돼 있기도 했다. 무게는 5~10kg으로 낙하 시 위력은 자동차 앞 유리 를 깨뜨릴 정도로 위협적이다. 내용

물 자체의 생화학적 위험은 없지만, 물리적인 피해와 기폭 장치로 인한 폭발 및 발화 위험이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미국무부와 유엔도 입을 열었다. 미국무부 대변인은 6월 3일 "오물 풍선 살포는 역겨운 전술"이며 "북한은 이를 그만둬야 한다"며 규탄했다. 또, 5월 29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정전 협정 위반으로 규정하여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이유는 탈북민 민간 단체의 대북 전 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다. 대북 전 단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생필품을 실어서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방식이다. 탈북민 단체가 전단을 날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고향 사람들에게 북한 체제의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한 '정보 유입'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5월 29일, 대남 오물 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며 "대한민국 정부에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오물 풍선 사태가 북한 주민들의 소행이라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그러나 여덟 번째 오물 풍선 살포 직전 김여정은 탈북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처참한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위협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주체가 북한 정권임을 인정할 격이다.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대응했다. 6월 4일, 정부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체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졌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여 대응 중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한은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먼저 양보할 때 패배하는 것처럼 비치는 '명분의 뒷'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이대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정세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결국 한쪽이 포기해야 끝나는 싸움이니,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규제'를 통해 긴장 상태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계속하며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풍선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 있다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인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정부 뿐 아니라 국민 모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재근 수습기자
(worm1207@skuniv.ac.kr)

연이은 군 사망사고 보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출처 : 게티이미지

지난 6월 23일 오전 5시경 제51 보병사단 소속 일등병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대 내 부조리 정황이 포착됐고, 압존법과 암기 강요, 육설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압존법은 청자를 기준으로 대화 대상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어법이다. 군대에서 신병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시 선임들이 사적으로 괴롭히는 대표적 부조리로 사용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 대대적인 압존법 폐지가 결정됐지만 해당 사건

을 통해 아직도 암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유가족은 "뉴스에서 보던 일이 왜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다", "자대 배치받고 한 달도 안 됐다"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7월 26일 기준, 올해 보도된 군 내 사망 사건은 5건이다. 병사 사망 사건은 지난 5월 21일 발생한 제32 보병사단 수류탄 폭발 사고, 5월 23일 발생한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그리고 위 사건까지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총 3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처하는 군 당국의 대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건의 경우 군기 훈련을 빙자한 가혹 행위 끝에 훈련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중대장을 3주 가까이 방치했으며 심리상담 멘토 배정, 연가 사용 및 귀향 조치가 내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피해 훈련병의 발인 날과 다음 날에도 웃음 체조를 실시한 것이 알려지며 큰 파문을 불러왔다. 웃음 체조는 억지로 웃음을 강요하는 병영 부조리 중 하나다. 비상식적인 행태로 문제들을 무마하려는 군 당국의 태도에 과거를 답습한다는 많은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공론화를 통해 언론에 알려지는 군 사망사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훨씬 많은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자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군 사망자 수는 103명으로 집계되며 그중 자살한 군인의 수는 무려 83명이다. 사망자의 8할이 안전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 또한 93명의 사망자 중 70명이 자살로 집계되고 있다. [출처: e-나라지표 통계]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자살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 내 자살 사고의 중·부사관 계급 사망자 수가 전체의 4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군 사망사고와 자살 사고가 징집 대상 훈련병과 병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문제라는 지표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 전담, 열악한 정책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고충 등으로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군 생활 중 폭언과 폭행, 업무 과중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군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특히 초급간부에 대한 급여 및 지원금 인상과 고충 관리, 맞춤형 상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세계일보]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kyhu@naver.com)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인가?

지난 5월 16일, 정부가 KC 인증(국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직구 규제를 발표했다. KC 인증을 받았어도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 또한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 발언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정부가 해외 직구를 규제하려는 데에는 직구 물품의 유해성을 살피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국민들의 직구 물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직구 물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구매한 해외 물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이 중국 이커머스에 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 252개를 검사한 결과, 38개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를 넘겨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화장품과 튜브 등 어린이 물놀이 용품 일부에선 중금속, 타르 등의 유해 성분,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류에선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확인됐다. [출처: 아시아경제] 지속적으로 유해 성분이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이나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무분별한 직구는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정책임에도 과도한 규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각에선 정부가 중국의 한국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해 안전을 내세워 소비자의 선택권



▲ 출처 : 아시아경제

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직구 규제 정책에 더 큰 반응을 보인 건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 소비를 즐기는 젊은 층이었다. 특히 인형을 사던 소비자들은 모호한 규제 기준에 불만을 표했다. 같은 인형이라도 '어린이용'으로 표기된 제품은 직구가 어려우나 '성인용'으로 표기된 제품은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직구 규제 발표 전 구매했던 상품이 규제 발표 이후 통관이 제한되면 값은 지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외직구 물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KC 인증은 국가에서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엔 취득 비용이 많이 들며 유효기

간은 5년으로 짧다. KC 인증이 '안전'을 검증할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취지는 좋으나 정책 개정 후 벌어진 여파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발표한 점은 결국 혼란을 빚었다.

해외 직구 규제는 비단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닌 경제문제로도 작용한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구매하게 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욕구다. 국내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직구 전면 금지가 아닌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 소비자가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고 해외 이커머스로부터 국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신가은 수습기자
(yulyull1214@skuniv.ac.kr)

놀 시간 없는 어린이, 놀 곳 없는 중고생... 대한민국 청소년은 행복하고 싶다



▲ 출처 : Freepik

초등생 10명 중 4명은 방과 후 또래와 '놀지 않는다'고 답한 데 이어 중고생의 정신건강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다.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초등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에게 하고 후 또래와 노는 장소를 묻는 말에 '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38.3%로 나타났다. 방과 후 또래와 노는 빈도는 '일주일에 1~2일 정도'가 32.1%로 가장 많았지만 '거의 없다'도 27.9%에 달했다. 10명 중 6명의 어린이가 거의 놀지 않거나 1~2일만 놀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충남일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5월 28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국가승인통계를 재가공해 배포한 '2024 청소년 통계'에서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질문에 '그

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2020년 대비 0.7%p 증가했다. 또한 국내 중·고등학생 26.0%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 이는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을 추린 비율이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교육과 부족한 놀이공간을 청소년 행복도를 저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여가부의 앞선 통계는 초·중·고 등학생의 80%가량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앞선 전교조의 실태조사에서도 방과 후 친구와 놀지 않는 이유로 '학원·학습지·온라인 학습을 해야 해서'라고 답한 아이들이 81.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생으로 근무 중인 이가은(21) 씨는 원생들의 일과를 묻는 말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귀가하기보다는 학원

으로 간다. 예체능 교육일지라도 사교육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게 보인다. 어린 나이에 자유롭게 뛰놀기보단 정해진 틀 안에서 일과를 보내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다'고 답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 시설과 청소년 여가 공간이 낙후되고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송윤정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논문을 통해 "안전관리의 중심의 시설 규정을 넘어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및 가이드 라인을 통해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고: 더스퀘어] 또한 청소년 중심의 자율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놀 권리와 문화권을 보장하고 유해 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전교조는 "대한민국 어린이는 놀 시간도 놀 장소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어린이 행복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22개국 중 22위로 꼴찌를 기록한 점을 근거로 "또래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놀이 정책을 디지털 교육 정책에 앞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경향신문]

청소년 행복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부활한 대학가요제, 울려 퍼진 서경인의 목소리

빛나는 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펜타클의 진솔한 멜로디

Q. 간단히 팀을 소개하자면.

A. 간단 김재운(실용 21, 피아노전공), 기타 나운서(실용 21, 기타전공), 보컬 박은혜(실용 21, 보컬전공), 베이스 허은찬(실용 22, 베이스전공), 드럼 이호찬(실용 21, 드럼전공), 건반 이예찬(실용 22, 피아노전공)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팀명은 다섯 개의 빛나는 별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뜻의 단어 '펜타클'에서 가져왔습니다. 팀원이 여섯 명이어서와는 상관없이, 빛나는 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밴드를 결성했는지, 서로 친해지게 된 계기는?

A. 친해진 건 실용과 7기 동기 혹은 8기 후배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며 친해졌고, 합주를 많이 하다 보니 음악성이 잘 맞다고 생각해 밴드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Q. 대상 수상 당시 기분과 그 후 주변 반응은.

A. (박은혜) 저희 모두 리허설 때보다 본 무대가 아쉬웠습니다. 무대 후 기대는 조금 했으나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동상부터 수상하는데 펜타클은 안 불러서 '정말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체념하고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대상에 저희가 호명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다들 울기도 했어요.

A. (허은찬) 밖에서는 그냥 일반인이지만, 학교 내에서는 알아보는 분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좋은 기회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Q. 대학가요제 상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A. (김재운) 상금은 인원수에 따라 나눠 가졌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음 곡을 위한 아이디어도 얻고 휴식도 취하고 왔습니다.

A. (나운서) 저는 사고 싶었던 음악 장비 구매에 투자했습니다.

A. (박은혜) 돈을 크게 쓸 일이 없어서 가족들 용돈으로 나눠드리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A. (허은찬) 저도 반반 나눠서 받은 악기 구매, 받은 저축해 갈 가지고 있습니다.

Q.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한 'Mars to Mars'와 친분이 있는지.

A. 선후배 사이로,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친한 건 아니고 개개인의 친분이 섞여 있습니다. Mars to Mars 외의 다른 밴드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무대에서 볼 일이 많아 자주 연락하는 편입니다.

Q. 발매한 곡들의 제작 과정이나 출전한 대회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김재운) 작년에 구리에서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 달빛이 엄청 강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영감을 받아 'Moonlight'을 썼습니다. 이번 앨범 커버도 그 사진이에요.

A. (박은혜) 'Moonlight'가 제가 들어오는 계기가 된 곡입니다. 원래는 정식 보컬이 아닌 객원 보컬로, 이번 프로젝트를 같이 해 보고자 들어왔는데, 이 곡으로 첫 대학가요제에 나왔는데 큰 상을 받아서 그 기회에 정식 보컬을 하게 됐습니다.

A. (나운서) 그동안은 지방 대회가 많아서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다녔습니다. 여행에서 영감을 많이 얻기도 해서 즐기면서 대회들을 다녔던 것 같아요.

Q. 지금까지 발매한 곡들 모두 'light'나 'star' 등 빛이나 우주를 의미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펜타클만의 세계관이나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A. (김재운) 첫 앨범의 곡 제목이 'New Planet'과 'Piano Star'였습니다. 따로 제작한 곡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의미가 통일돼 펜타클만의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다양한 대회에서 좋은 성

적을 거두는 펜타클만의 최대 강점은?

A. (김재운) 개인적으로는 서로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했을 때 시간 단축도 잘 되고, 준비가 잘 되어있는 상태에서 합주를 진행하니깐 싸움 일도 없고 진행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A. (허은찬) 서로의 공간을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저도 강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공간을 알고 그 정도를 채우기 위해 충분히 노력합니다. 또 학교 선배 배다 보니 친하고, 형이지만 편하게 대해줘서 싸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좋은 합과 연주자나올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A. (박은혜) 같이 합주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펜타클만의 강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가 강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좋은 수상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음악가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A. (김재운) 꿈이 많은 편이라 원하는 것이 많은데요, 가장 가까운 목표는 펜타클 단독콘서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A. (나운서) 무대 경험을 쌓고 대중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A. (박은혜) 펜타클만의 좋은 메시지를 잘 구축해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A. (허은찬) 저희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꼭 팬타클만의 단독콘서트를 열고 싶습니다.

Q. 각자 악기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A. (김재운) 일곱 살 때 피아노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피아노의 매력에 빠져든 거 같아요. 친할아버지께서 직업으로 삼진 않았지만, 기타를 정말 잘 치셨다고 들었습니다.

A. (나운서)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기타 치는 것을 보고, 기타가 신기하게 생겨서 흥미가 갔습니다. 친구와 같이 배우다 적성에 맞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A. (박은혜)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목청이 커서 동요 시간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노래 자체에 대한 흥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버지께서 '영웅시대' 그룹사운드 보컬이어서, 그 끼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A. (허은찬)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누군가 베이스를 치는 걸 보고 부모님께 배우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부모님이 예술고에 다니면 허락해 준다고 하셔서 예술고에 진학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피아노를 잘 치는데, 그 끼를 물려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주로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 영감을 받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A. (김재운) 개인적으로 우주에서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면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A. (나운서) 공연을 보러 다니며 영감을 받는데, 최



▲ 출처: 본인제공

근에는 가수 성시경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A. (박은혜) 때마다 항상 다른데 정말 편안한 상태일 때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영감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기록을 열심히 해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A. (허은찬) 욕심이 많은 편이라 타인의 연주를 듣다가 '저 연주 좋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혼자 연습해 보며 그 과정에서 영감을 얻는 편입니다.

Q. 대중들에게 어떤 음악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A. (김재운) 요즘은 여러 장르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음악을 들어도 퓨전이라고 할 정도로 장르에 대한 선이 사라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펜타클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저희의 장르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A. (나운서) 저희 특징은 음원도 좋지만, 라이브에 강한 것인데요. 저희를 보고 에너지와 힘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A. (박은혜) 펜타클만이 줄 수 있는 에너지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에게 저희만의 희망, 긍정적인 에너지,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A. (허은찬) 모두가 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느끼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저희 음악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시간을 보냈구나" 혹은 "이런 느낌이었구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 발매할 신곡 혹은 무대 스포일러가 가능한지.

A. (김재운) 써놓은 곡이 두 곡 있습니다. 제목이 'Teaser'입니다. 말 그대로 예고라는 뜻으로, 박은혜가 들어오고 함께 쓴 곡입니다. 'Moonlight' 때는 객원 보컬이었지만 진짜 여섯 명이 모이고 같이 쓴 곡이라 우리 이야기를 예고한다는 곡을 썼습니다.

Q. 마지막으로 기사를 보는 팬과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메시지와 음악을 들려 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뻗어 나갈까, Mars to Mars

Q. 간단히 팀을 소개하자면.

A. 안녕하세요, 저희는 'Mars to Mars'입니다. 멤버 모두가 서경대학교 출신으로, 보컬 이현우(실용 18, 보컬전공), 피아노 민우현(실용 21, 피아노전공), 베이스 박하나멜(실용 21, 베이스전공), 기타 김태형(실용 21, 기타전공), 드럼 윤주명(실용 21, 드럼전공), 객원 드러머 금강산(실용 19, 드럼전공)입니다. 팀명은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일종의 말장난인데요, '경기도 화성에서 우주 화성까지' 저희 노래가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학가요제 공연에 주무이는 군 복무 중이라 함께하지 못했어요.



Q. 어떤 계기로 밴드를 결성했는지, 서로 친해지게 된 계기는?

A. (박하나멜) 작년 말에 함께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을 촬영한 적 있었는데, 음악적으로 소용이 잘 되고 성격도 잘 맞아 밴드를 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 흔쾌히 동의해 줘서 이렇게 결성하게 됐네요.

Q. 각자 악기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A. (박하나멜) 교회에서 처음 베이스를 접하고 가수를 꿈꾸며 베이스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A. (민우현) 어머니가 피아노 강사세요, 피아노를 시작한 후 흥미를 잃지 않아 계속 치고 있습니다.

A. (이현우)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를 듣고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마침 친구가 함께 밴드를 해보라고 제안해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출처: 본인제공

Q. 2024 대학가요제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A. (박하나멜) 대학가요제는 그 이름처럼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자 참가했는데, 운이 좋게도 수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Q. 수상 당시 기분과 그 후 주변 반응은.

A. (박하나멜) 본선에 참가한 모든 팀의 실력이 뛰어나서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수상의 영광을 안게 돼 매우 기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부담감도 느꼈고요, 주변에서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A. (이현우) 친구들이 기뻐해 줘서 저 또한 정말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Q.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펜타클'과 친분이 있는지.

A. (민우현) 각자 학년이 달라 수업은 같이 듣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자주 만나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펜타클의 건반 채운이 형과는 앨범 발매 작업도 함께 하고 있어요.

A. (이현우) 저는 거의 친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하며 조금 친해졌습니다.

Q. 대학가요제에서 공연한 곡은 어떤 곡인가.

A. 이번 대학가요제 본선에서 공연한 곡은 'I'm a fool'이라는 곡입니다. 주최 측 실수로 곡 제목과 설명이 'Falling Down'이라는 곡으로 오표기 됐

네요. Falling Down은 저희가 대학가요제 예선에 지원할 당시 불렀던 곡입니다.

A. (박하나멜) 'Falling Down'은 끝없는 자괴감과 우울함에 빠져 마치 눈에 갇힌 듯한 느낌을 표현한 곡이에요. 하지만 그 사이에 희망을 섞어놓은 곡입니다.

A. (이현우) 'I'm a fool'은 사랑에 실패해서 우울할 지언정,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녹여낸 곡입니다.

Q. 본선 곡 'I'm a fool'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A. (이현우) 제가 작사한 곡인데요, 실제 경험에 상충력을 더해 만들었습니다. 보통 가사를 쓸 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말을 적는 편이라 70% 정도는 경험을 바탕으로 작사했네요. 멜로디로는 사랑을 잘 모르는 이가 사랑을 배워가는 그 감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했어요.

Q. 음원 발매 예정은?

A. 'I'm a Fool'과 'Falling down' 더블 싱글로 올해 말 음원 발매를 계획 중입니다.

Q. 대학가요제 수상 이후 학교의 축하나 추가적인 지원이 있었는지.

A. (민우현) 학교 버스정류장 디지털 간판에 저희 이름이 언급돼 신기했어요.

A. (이현우) 학교에서 추가적인 영상 촬영과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Q. 동경하거나 영감을 받는 음악가는.

A. (민우현) 여러 음악가가 있지만, 캐나다 출신 3인조 밴드 'Valley'의 음악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대중 입장에서 듣기 편하고 부드러운 사운드, 중독성 있는 탑 라인이 특징이네요. 이러한 부분들을 배우고 또 저희 스타일을 가미하여 곡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A. (이현우) Mars to Mars로 앨범을 발매하고, 개인적으로 'Blue Day'라는 예명으로 곡을 발매하며 OST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Q. 대중들에게 어떤 음악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A.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컬을 들으면 "아, 애네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신선한 사운드와 함께 다양한 감정을 담은 곡으로 대중에게 위로를 주는 밴드로 기억되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기사를 보는 팬과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Mars to Mars, 그리고 'Blue Day' 많이 기억해주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언젠가는 서경대를 빛내겠습니다.

〈2024 한강대학가요제〉에서 서경대학교 학우들로 이뤄진 밴드 'Pentacle(이하 펜타클)'과 'Mars to Mars(이하 마스 투 마스)'가 각각 대상과 동상을 차지했다.

〈2024 한강대학가요제〉는 1977년 시작한 〈대학가요제〉를 모티브로 해 12년 만에 부활했다. 주최 측은 한강대학가요제가 상업성 위주의 기존 오디션 문화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순수 창작 열정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강대학가요제는 지난 5월 25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진행했다.

이번 가요제엔 무려 264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22대 1의 경쟁률을 뚫은 12팀만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 팀들이 부른 노래는 모두 타 대회에서 입상하지 않은 미발표 순수 창작곡이다. 상금은 총 2,000만 원으로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2팀이 수상했다.

본선의 진행은 개그맨 이영자, 아나운서 오상진이 맡았으며 심사에는 프로듀서 김형석, 가수 박성호 등 여러 유명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본선 진행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타로, 포토 부스, 먹거리 부스 등도

함께 진행해 물빛무대 앞 광장은 많은 시민들로 붐볐다. [참고: ENB 교육뉴스 방송]

차세대 한국 음악의 선두주자를 배출해 내기로 유명한 대학가요제에서 수상의 영광을 거머쥔 서경대 학우들로 결성된 밴드 '펜타클'과 '마스 투 마스'를 만나봤다. 취재부는 밴드 부원들을 인터뷰하며 꿈에 대한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빛을 볼 수 있었다. 본인들의 장르를 만들어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 준다.

도파민 해방일지, 기자들의 디톡스 챌린지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혹시 탕후루도?”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짧은 동영상은 SNS를 달궜다. 반복되는 노랫말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은 챌린지로 퍼지며 SNS 사용자들을 사로잡았다. 영상에는 중독성 있는 음식 마라탕과 탕후루가 언급되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챌린지 참여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 영상과 영상 속 음식의 공통점은 바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라탕의 매운맛과 향신료, 탕후루의 달콤함은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고 반복적으로 찾게 만든다. 또한 SNS에서 인기를 끄는 짧은 영상인 숏폼도 반복적인 자극을 주며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든다. 반복적으로 찾게 만드는 중독성은 우리 뇌의 도파민과도 연관이 있다.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즐거운 활동을

할 때 분비된다. 앞서 언급된 마라탕, 탕후루를 비롯한 중독성 있는 음식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도 한다. 음식, 숏폼과 같은 영상뿐만 아니라 운동, 게임 등 다양한 경험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지만 과도한 도파민 분비는 ‘도파민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도파민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도파민을 유발하는 요소가 너

무나도 많다. 한편, 신문사 기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도파민 중독에 빠졌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에 기자들은 일명 ‘도파민 디톡스’를 체험해 보기로 했다. 음식·숏폼·게임 등 분야별로 디톡스를 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적절한 도파민 균형을 실천했는지 이어지는 수기를 통해 확인해 보자.

도파민 중독? 도대체 뭐길래



▲ 출처 : pixabay

“혹시 나도 도파민 중독?” 유튜브, SNS 등 여러 미디어를 접하다 문득 이런 생각을 가져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도파민 중독’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매체에 언급됐고, 나아가 도파민을 줄이고자 ‘도파민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중독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든 도파민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파민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도파민을 유발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도파민은 동물에 존재하는 아민(amine)의 하나로 머릿골 신경 세포의 흥분 전달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쉽게 말해 에너지, 의욕, 동기, 흥미 등을 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인간에게 행복감을 주는 이 물질은 집중력, 학습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도파민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행동을 할 때 분비되는데 술, 담배 역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한다. 현대에는 도파민과 도파민 중독이 더욱 와닿을 것이다. 특히 MZ세대는 디지털 기기와 매우 가까운 환경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숏폼 등의 영상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 스크롤을 내린다면 도파민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도파민 중독의 원인은 디지털 기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마라탕, 탕후루, 하이볼과 같이 당분이 많고 자극적인 음식 역시 중독성을 일으킨다. 설상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도파민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다’라는 알고리즘을 형성해 더 많은 설량을 찾게 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자극적인 숏폼, 음식 외에도 음악, 게임, 드라마, 운동 등 도파민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렇다면 도파민 중독이 되지 않기 위해 도파민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할까? 우리에게 에너지와 흥미, 의욕을 주는 도파민을 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기분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조증,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도파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도파민 자극을 유발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도파민 디톡스’에 도전하는 등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도파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도파민의 개념과 도파민 중독의 원인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적절한 도파민 균형을 유지하며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자.



달달한 음식의 유혹, 액상과당·디저트 끊기 챌린지



“뺑지순례”, “당 충전”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요즘, 지친 현대인에게 달고 자극적인 음식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요소 중 하나다. 친구와 약속을 잡으면 카페에 가서 케이크를 주문하고, 회사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도 잠을 깨울 음료 한 잔을 사러 카페에 방문한다. 이렇듯 식사 후 카페에서 디저트와 음료를 섭취하는 게 필수코스가 됐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대부분의 디저트와 음료는 당류가 매우 높아 건강에 해롭다. 특히 액상과당의 경우 체내에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을 유발한다. 중요한 점은, 단 음식에 중독된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먹는다는 점이다. 필자 또한 단 음식을 피하려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중독돼 습관적으로 디저트를 찾고 있었다. 이에 심각성을 느껴, 액상과당과 디저트를 5일간 끊어보려고 다짐했다.

액상과당을 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단 음료를 물이나 차로 대체하는 것이다. 필자는 취업연계중점대학 인턴을 하면서 음료 대용으로 텀블러에 물을 수시로 채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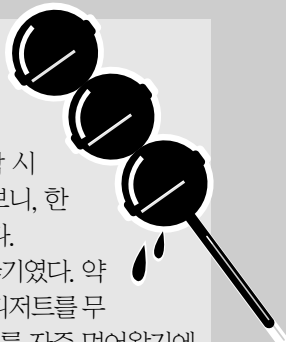
마시기로 했다. 물이 질릴 때쯤이면 티백을 넣어 차를 종류별로 타 먹으며, 식사 후 의식적으로 카페를 가지 않고 바로 회사로 복귀했다. 풀어지기 쉬운 방학 시기에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한 번 길들인 습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바로 디저트 끊기였다. 약속이 잡히면 카페에 가서 케이크나 빵 등 디저트를 무조건 먹게 되고, 집에서라도 식사 후 디저트를 자주 먹어왔기에 유혹을 참기란 쉽지 않았다. 챌린지에 도전하는 5일 중 약속이 잡혀 있는 하루는 디저트를 시키지 않고 아메리카노만 시키는 데 성공했다.

집에서 디저트를 대체할 만한 음식으로는 그릭요거트를 선택했다. 그릭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장 건강을 개선해 최근 떠오르는 건강식품이다. 시중에 판매하는 그릭요거트 제조기에 대량의 플레인 요거트를 넣고 하루 정도 유통 처리를 하면 일주일치 그릭요거트가 나온다. 여기에 블루베리, 토마토 등 과일과 견과류, 대체 달걀로스를 첨가하면 꾸덕꾸덕하고 달콤한 ‘대체 디저트’가 탄생한다. 5일 중 4일은 그릭요거트를 섭취했는데, 포만감이 있어서인지 다른 디저트가 떠오르지 않았다.

5일간 진행한 챌린지는 절대 쉽지 않았다. 성공과 실패 여부를 따지자면 액상과당은 성공이지만, 디저트의 경우 텀블러실에서 틈틈이 꺼내먹은 과자의 영향으로 실패라고 볼 수 있었다.

챌린지를 하며 느낀 점은 음식 또한 일종의 중독이라는 것이다. 달고, 맵고, 짜 도파민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음식들에 한번 길들여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다. 이러한 도파민 유발 음식들이 우리의 식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간식의 양과 횟수를 줄이고, 카페에 가면 단 음료와 디저트 중 하나는 포기하는 등의 노력을 해 보자. 10·20세대 젊은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요즘, 식단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시간 순삭, 숏폼 끊기 챌린지



숏폼(short-form)은 SNS 등지에서 접할 수 있는 동영상의 한 형태로, 현재 인터넷 문화와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굳이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숏폼의 양산화를 이끌었고, 어느덧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이 숏폼의 재료가 되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숏폼을 제공하는 매체는 광고 영상을 집어넣지 않고 계속해서 숏폼이 이어지게끔 한다. 보는 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숏폼에 쉽게 빠져들고, 숏폼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진다. 결국 숏폼은 ‘도파민 중독’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가 됐다.

필자 또한 숏폼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기 전 무심코 클릭해버린 숏폼 때문에 눈을 깜빡 쉰 적도 허다했다. 이동 시간, 식사 시간 등 온갖 자투리 시간은 숏폼을 보기 안성맞춤이었고, 곧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시로 앱을 들락날락하게 됐다. 스스로 집중력 저하가 체감될 정도였다. 숏폼을 끊어야겠다는 다짐에 이르렀다.

5일간의 숏폼 끊기 챌린지를 위해 가장 먼저 숏폼 볼 수 있는 앱을 삭제했다. 숏폼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통로를 없애 확연히 숏폼 시청 시간이 줄었다. 하지만 곧 다른 경로를 통해 숏폼에 접근했다. 게다가 숏폼을 주로 시청하던 시간을 대체할 방법을 찾지 않은 채로 무작정 제한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이가 된 기분이었다.

고로 숏폼을 포함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활동 자체를 중단하는 것과, 자유 시간에 숏폼을 대체할 여가 활동을 찾아야 했다. 강구한 방법은, 스마트폰과 숏폼이 생기기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일단 숏폼을 가장 많이 보던 이동 시간에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본래도 이동 시간에 책을 가지고 다녔지만, 책을 읽고자 하는 의지는 숏폼의 편리성과 자극성 앞에 번번이 무너지곤 했다. 확실히 책을 읽으니 이동 시간의 지루함을 떨쳐낼 수 있음은 물론, 성취감까지 챙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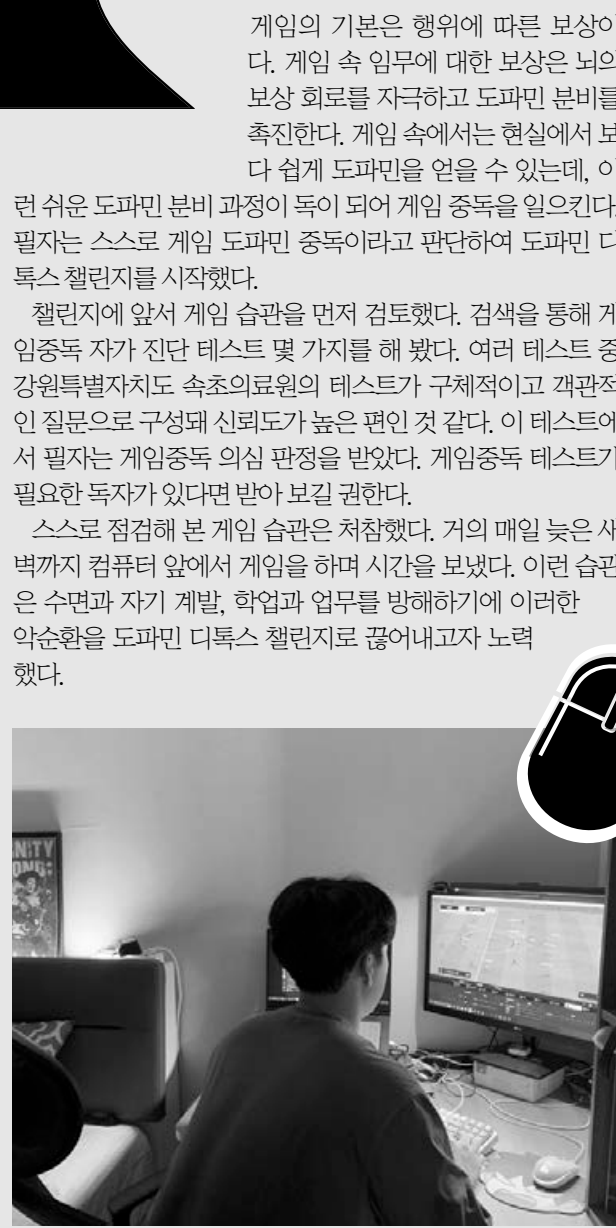
또한 고요함과 조용함을 느껴 보기로 결심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언제부터 지루한 것이었는가? 고요함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던 눈을 주변으로 돌렸다. 스마트폰이 없던 어린 시절, 창밖의 푸르른 하늘을,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마주앉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원래라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을 시간과 장소에서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을 하릴없이 바라보며 감상에 젖는 일은 생각보다 의미가 깊었다.

숏폼을 시청하는 대신 운동도 하기 시작했다. 한두 시간이라 할지라도 운동은 숏폼 시청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했다. 또한 운동을 통해 몸의 잔여 에너지를 소진하여 잠자리에 쉽게 들 수 있었는데, 수면의 질 향상과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맞추는 효과까지 있었다.

5일간 숏폼 사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숏폼 근절은 물론, 몸을 다채롭게 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물론 숏폼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지만,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를 통해 방법을 깨쳤으니 서서히 숏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겠다.



데일리 새벽 게이머의 게임중독 탈피 챌린지



게임을 기본은 행위에 따른 보상이다. 게임 속 임무에 대한 보상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 게임 속에서는 현실에서보다 쉽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쉬운 도파민 분비 과정이 독이 되어 게임 중독을 일으킨다. 필자는 스스로 게임 도파민 중독이라고 판단하여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를 시작했다.

챌린지에 앞서 게임 습관을 먼저 검토했다. 검색을 통해 게임 중독 자가 진단 테스트 몇 가지를 해 봤다. 여러 테스트 중 강원특별자치도 속속의료원의 테스트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으로 구성돼 신뢰도가 높은 편인 것 같다. 이 테스트에서 필자는 게임중독 의심 판정을 받았다. 게임중독 테스트가 필요한 독자가 있다면 받아 보길 권한다.

스스로 점검해 본 게임 습관은 처참했다. 거의 매일 늦은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런 습관은 수면과 자기 계발, 학업과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러한 악순환을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로 끊어내고자 노력했다.

지난 6월 24일부터 5일간의 챌린지를 시작했다.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계획대로라면 그 지난주에 시작했어야 했지만, 같은 과 선배와의 만남 중 피시방에 가게 되며 무산됐었다.

챌린지 둘째 날까지는 게임 생각이 많이 났다. 주로 하던 벡스んの 축구게임 ‘FC온라인’은 매일 일정 게임 횟수를 채워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못 받은 보상들이 아른거렸다. 셋째 날부터는 취업연계중점대학 인턴 실습을 하게 돼 상황이 달라졌다. 9시부터 6시까지 업무를 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나면 피로가 몰려와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다. 몸이 피로하니 게임 생각을 할 겨를이 없게 됐고, 그렇게 업무 피로도의 도움을 받아 5일간의 챌린지에 성공했다.

이번 챌린지를 하며 깨달은 바가 두 가지 있다. 우선 게임을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 생활패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학기 필자는 주 2일 등교하는 시간표 때문에 여가가 많고 피로도가 적어 남은 시간과 체력을 게임에 쏟았다. 그러나 인턴 실습과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니 다른 곳에 쏟아야 할 시간과 체력이 부족해졌고 자연스럽게 게임을 안 하게 됐다.

다른 하나는 게임을 완전히 통제해도 다른 매체에서 도파민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게임으로 얻던 도파민이 사라지자,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일평균 1시간 정도 늘었다.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숏폼 영상을 많이 봤다. 게임으로 얻던 도파민을 숏폼을 통해 보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챌린지가 끝난 주말에 체력이 남으니 밤을 새워 게임을 했다.

결국 환경이 바뀌어서 일시적으로 변한 것이지 게임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골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뇌의 보상 체계를 교란하는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여 도파민 과다를 막아야 한다. 다음 챌린지는 게임과 숏폼을 함께 끊어보겠다고 다짐했다. 당신도 끊지 못한 도파민이 있다면 함께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



주간칼럼



몽골 나담축제를 다녀와서

주간 방미영 교수

온 국민이 기다리는 축제,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축제가 열리는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축제가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궁극증을 안고 얼마 전 축제가 열리는 몽골을 콘텐츠 연구 교수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까지는 4시간이 채 안 되는 비행시간으로, 유럽이나 미주를 가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몽골은 한반도의 7.1배의 면적에 인구는 339만여 명이다.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서울 면적의 7.7배로 아시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나라다. 그러나 몽골로 들어가는 관문인 칭기즈 칸 국제공항의 작은 규모로 몽골의 경제 규모를 알 수 있었다. 수화물을 찾는 라인도 몇 개

되지 않아 짐 찾는 데만 1시간가량 걸렸다. 수화물 벨트도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 근로 후 귀국한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사서 가져간 밥솔과 유모차 등 화물 짐들이 몰려 혼잡했다. 한참을 기다려 캐리어를 찾아 숙소로 이동할 수 있었다. 다행히 나담축제 전야제가 열리는 곳 인근에 숙소를 둔 덕분에 학술행사에 함께 온 교수들과 페레이드와 공연, 불꽃놀이로 진행된 나담축제 전야제를 오롯이 관람하였다. 전야제 다음날 도심에서 1시간가량 이동하여 초원 한가운데 마련된 나담축제 행사장에 도착하였다.

몽골의 나담 축제(Nadam Festival)는 매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몽골의 대표적인 전

통 축제다. 몽골의 민속 문화를 기리고, 고유의 전통을 재현하는 의미를 지닌 나담축제는 세 가지 주요 행사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레슬링이다. 몽골 전통 레슬링은 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참가자들은 특별한 전통 복장을 하고 신체적인 힘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집중과 전략을 겨룬다. 두 번째는 경인근에 속소를 둔 덕분에 학술행사에 함께 온 교수들과 페레이드와 공연, 불꽃놀이로 진행된 나담축제 전야제를 오롯이 관람하였다. 전야제 다음날 도심에서 1시간가량 이동하여 초원 한가운데 마련된 나담축제 행사장에 도착하였다.

몽골의 중요 축제인 나담축제의 모든 행사는 몽골국립예술대학교가 주관하고 있었다. 축제장에 마련된 패 넓은 게르는 전통 음식과 음료 등 귀빈용 리셉션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한국의 교수진을 맞이하기 위해 몽골국립예술대학교 총장, 부총장 및 각 단과대학장이 모두 나와 있었다. 축제장에 마련된 체험 부스와 프로그램 등은 모두 몽골국립예술대학교 교수진과 학생들이 이끌고 있어 몽골국립예술대학교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다.

축제 현장에서 전통의상을 입어 보고, 악기를 붙어보면서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이 축제장을 찾아오게 하는 별도의 홍보 방법이 무엇인가 궁금했다. 필자의 궁극증을 의외로 쉽게 풀었다. 나담축제는 몽골의

국가적 축제로 별도로 홍보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1년을 꼬박 기다려 축제를 관람하러 온다고 한다. 너른 초원에 마련된 주차장에 가득 찬 차량으로 관람 인파를 짐작할 수 있었다. 몽골의 전통과 문화를 기념하는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감을 제공하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1년을 꼬박 기다린다는 나담축제를 관람하면서, 유명 가수 중심 우리의 축제 현상이 오버랩되었다.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통해 민족의 고유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쁨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들을 너그럽게 바라봐 주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 기자의 눈 |

훈육 예능의 부작용, 아이들의 인권은 어디에?

최근 몇 년간 ‘궁극같은 내 세계’와 같은 훈육 예능이 대세로 떠올랐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출연한다.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개선하기 위한 육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잘못된 양육 방식을 보이는 부모에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한다.

‘궁극같은 내 세계’는 일종의 관찰형 육아 예능이다.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의 부모가 출연해 부적응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한다. 일상을 담은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문제점과 원인을 지적하고, 부모는 오 박사에게 육아 조언과 해결책을

제공받는다. 깊이 있는 솔루션을 통해 아이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 부작용도 있다. ‘궁극’로 불리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의 모습은 유튜브 브와 SNS에 평생 남게 된다. 훈육 및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환경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각종 기사나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숨기고 싶은 모습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궁극같은 내 세계’ 유튜브 채널은 출연자들의 신상 보호와 비난 방지 차원에서 댓글 창을 차단했음에도 일부 자극적인 장면만을 편

집한 콘텐츠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이는 유니세프의 아동에 대한 언론 보도 원칙 및 지침에 위배된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경우라 해도 어린이 인권을 훼손해 주변에 잘못된 어린 나이로 낙인이 찍히거나 스어린이가 가정환경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각종 기사나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숨기고 싶은 모습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다.

시청자들이 훈육 예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오 박사가 제시한 솔루션을 무작정 자신의 아이에게 적용하면 나아지리

라 생각하는 것은 패착이다. 가정환경과 부모의 태도, 아이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방송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는 서경대 아동학과 심혜원 교수는 “아이의 욕구를 이해하고,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할 방법과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훈육 방법 등이 널리 홍보되고 배포돼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훈육 예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 ‘궁극’라 칭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하다.

훈육 예능 애청자라면 모두 공감하겠지만, ‘궁극’은 사실 아이가 아닌 부모인 경우가 많다. 보통 아이의 기질적 문제보다는 부모의 양육 태도나 가정환경에 따라 잘못 맺어진 불안정 애착과 사회적 환경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모든 급쪽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들을 너그럽게 바라봐 주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 수습의 눈 |

해브 어 굿 페스티벌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해브 어 나이스 트립(Have a Nice Trip) 페스티벌’에 다녀왔다. 장마철 굵은 비가 휩쓸고 간 직후라 무척이나 덥고 습했지만 실내에서 진행된 덕에 쾌적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기본 좋은 여행을 다녀온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공항 출입구, 항공 티켓 등을 축제 콘셉트로 내세운 것도 유쾌함을 더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신생 페스티벌인 만큼 아직 인지도가 부족했는데 킨텍스 전시장은 먹고 마시고 공연을 즐기는 이들로 하루 종일 가득 차 있었다. 이렇듯 국내 음악 페스티벌 산업은 코로나로 인해 침울했던 시기를 지나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나 EDM처럼 특정 장르와 마니아층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던 음악 페스티벌이 몇 년 새 음악 취향에 상관없이 다수가 향유하는 대세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필자가 다녀온 페스티벌처럼 새로운 음악 페스

티벌이 등장하고, 워터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등 2000~2010년대에 시작된 페스티벌들은 몸집을 불려 가는 중이다.

“페스티벌 하면 여름이지”라는 것도 옛말이 됐다.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계절마다 수많은 축제의 장이 열린다. 심지어는 한겨울에도 실내 공연장을 이용한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1년 365일이 ‘축제하는 날’이다.

하지만 음악 페스티벌은 즐겁고 흥겨운 이면에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중 매년 반복되는 지적은 티켓 가격 상승과 불안속스러운 공연 라인업, 그리고 주최 측의 미흡한 대응이다. 일례로 서울재즈페스티벌은 2012년에 비해 티켓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리며 논란이 됐다. 2019년엔 ‘가수 연 마리 무료 공연’으로 더욱 알려진 모 페스티벌 측의 일방적 공연 취소와 환불 관련 문제도 있었다.

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페스티벌 산업의 아윤 구조에 있다. 성공적인 모객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유명 헤드라이너(대표 출연자)를 섭외해야 하지만, 큰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티켓값을 인상하게 된다. 하지만 값을 올려 매출액이 는다고 해서 주최 측이 배를 불리는 구조는 아니다. 이는 모두 페스티벌 개최에 들었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이고, 사실 이마저도 적자다. 따라서 페스티벌이 대중문화로 계속 발전하려면 헤드라이너 의존과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주최 측은 음반 사업과 같은 공연 외 사업을 병행해 부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페스티벌 산업에는 티켓 판매량이 확정되기 전에 축제 기획 비용을 먼저 들여야 한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 임무다.

또한 페스티벌 자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비자들이 라인업에 연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형화된 공연장에서 열리는 도상형 페스티벌을 넘어 지역 특색을 살린 페스티벌이 늘어야 한다. 이는 양산형 페스티벌과의 차별점이 되어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경제 효과를 미칠 것이다. 페스티벌이 일반 공연과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페스티벌은 콘서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피크닉 존이나 이벤트 존 등 공연 외의 문화 요소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해 축제 콘셉트를 명확히 하는 브랜드는 ‘가수의 팬’이 아닌 ‘페스티벌 자체의 팬’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일례로 DMZ 피스 트레인(Peace Train) 페스티벌을 들 수 있다. 이 축제는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리는 데, 군 경계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

성과 한탄감 등의 자연물을 활용해 색다른 축제 이미지를 각인하는 것에 성공했다. 소위 말하는 거품급 헤드라이너 없이도 변함없는 인기를 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의 운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주최 측은 판매 및 환불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공연 일정에서 충분한 사과와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축제를 즐기는 이들 역시 불가피한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페스티벌 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문화산업을 위해 축제를 만들고 또 향유하는 모든 이들에게, 페스티벌만큼이나 그 이면의 산업 구조도 유쾌해지는 그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한다. 해브 어 굿 페스티벌!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 수습의 눈 |

인공지능의 발전...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Chat GPT(챗지피티)’, ‘Gemini(제미니)’, ‘클로바노드’ 등의 명칭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단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이름으로, 대화를 통한 정보 제공, 글 번역 및 요약,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등 목적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OpenAI의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모델 발표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 생성형 AI 모델을 발표했고,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다. 이는 단순한 연구 주제를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줬다. 주변만 봐도 수업 내용을 AI로 녹음해 글로 변환하는 학우, AI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우들을 찾을 수 있었다.

사실 필자는 AI를 활용해 과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직접 스스로 생각해, 보고서를 작성한 학우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원치 않게 AI를 활용하는 건 반칙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다.

작년 10월, ‘AI시대의 생존과 성장전략’ 포럼에 참여할 기회가 있

었다. 이전에도 답답님과 머신러닝에 관심이 많아, AI를 주제로 한 포럼이 기대됐다. 포럼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특별연설 및 세션 1 ‘AI는 인간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세션 2 ‘AI시대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

이 포럼의 세션 2에서 한 패널의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Chat GPT를 활용해 과제 하는 학생들이 하는 건 반칙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다. 기조연설을 통해 AI 시대의 생존과 성장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기조연설을 통해 AI 시대의 생존과 성장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선생님과 교수님들도 이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내는 게 교육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관점이 새로웠다.

필자는 포럼이 끝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보수적인 태도만 있던 것 같았다. 물론 과제 전체를 AI에 맡겨 복사하고 붙여 넣는 행동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해 도움을 받는 것은 진보된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세대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생성형 AI는 이제 언어 모델 기능에서 나아가,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 예시로 포토샵에서는 프롬프트에 명령어만 입력하면 원하는 사진을 생성한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은 계속될 것이기에, 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예진 수습기자
(jinwd@skuniv.ac.kr)

만/파/식/적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로

지난 6월 29일, 3년 만에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았다. 2021년 서울국제도서전 이후 얼마 만인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오랜만에 방문한지라 잔뜩 기대했다.

이제 웅결, 입장부터 쉽지 않았다. 뻘뻘하게 들어선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줄을 섰다. 여태까지 방문했던 국제도서전에서 체감상 사람이 제일 많았다. 전시장 내로 들어서자 입장 전 제대로 구경이나 할 수 있을까 했던 예상이 맞아떨어졌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여기저기서 감탄인지 한탄인지 모를 탄성이 흘러 나왔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전시장에서는 멈추면 안 되는데,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면 금세 정체되기 일쑤였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 뒤에서는 자꾸만 밀려왔다. 이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겨우 서 있을 자리를 마련해 멈춰서 부스를, 책을 구경했다. 도서전에서는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한데 모여 노장청을 마련하고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고 있었다. 출판사별 부스가 즐비한 전시에서는 독자들 본인이 나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현상이 펼쳐졌다.

대형 출판사 부스나 트렌드에 민감한 독자들을 겨냥한 굿즈를 판매하는 부스에는 일순간에 사람들이 몰렸다. 그럴 때마다 구경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비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돼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밀려든 인파에 앞뒤로 움직이지도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얼른 빠져나왔다. “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뿜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이 공간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다. 책도 살 만큼 샀고 볼 만큼 다 봐서 떠나는 게 아쉽지 않았다.

에당초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만 책을 사려고 마음먹은 대로, 육심을 털어내고 사고 싶은 책을 고르고 골랐지만 결국 또 양손 가득 책을 바리바리 짊어졌다.

전시장을 나서며 맨 처음 도서전을 관람했을 때가 떠올랐다. ‘여기가 무릉도원인가, 지상낙원인가’ 하루 종일 머무르고 싶던 전시였는데 이리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다니 속상했다. 그동안 못 간 도서전에 대한 보신인 듯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지 실망도 컸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서전에 안 갈 거라고 묻는다면 대번 “가야지”라고 대답할 거다. 매년 도서전은 달라지고, 이번 도서전을 통해 다음 도서전은 분명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전에서는 운이 좋으면 책을 쓴 저자와 만나서 이야기기도 나누고 사진도 받을 수 있고, 둘러보다 보면 볼품 같은 책과 출판사를 발견하는 깜짝 선물이 찾아올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책 축제’인 도서전의 장점은 책에 아낌없이 애정을 쏟는 사람들의 진심과 정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전히 책을 짓고, 읽는 이들이 많음을 느낀다.

송민경 기자 (illdawn012@skuniv.ac.kr)

사설

손가락은 활발히 뭉은 가만히...
나서지 않는 학생들

서경대학교가 올해 학사구조 개편이라는 또 한 번의 풍파를 겪었다. 당시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화가 난 학우들로 가득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총장과 면담 이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진행된 반대 서명운동에는 1,884명의 학우가 참여했다. 이는 우리 학교 재학생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수다.

여전히 학우들의 반대 의견이 꺾이지 않자 문예홀에서 진행된 ‘전체 학생 대상 학사구조 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인원은 약 70명이었다. 간담회에 참여해 직접 인원을 세어 본 입장으로 말해 보자면 총학생회와 수습 부원, 학교 측 관계자들, 신문사 기자들을 제외한 실제 참여 인원은 약 50명 정도뿐이었다.

에브리타임에서는 스포스퀘어에서 시위를 열면 참여하겠다는 등, 단체로 수업 결석을 하자는 등의 게시물이 무지성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정작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리에는 공식으로 응대하는 학우들, 간담회 이후 에브리타임에서도 참석률이 적었다는 지적이 올라왔지만 “이미 학교 측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폐합을 강행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갔다” 혹은 “가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댓글이 달릴 뿐이었다.

그 와중에 총학생회에 쏟아지는 날 선 비판의 말들은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였다. 총학의 대처가 적절했을 수도, 미흡해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 주어진 간담회라는 기회는 무시하면서, 대표로 나서서 총학생회에만 화살을 던지는 모습이 아이러니했다.

학사구조 개편 문제는 불이익이 두려워 본인 이름을 걸고 나서기 쉽지 않고, 시점 시간과 겹쳤기 때문에 학우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태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저조한 총학생회·단과대학총회 투표율로 총학은 투표 독려 이벤트를 연다. 또한 서경대 라디오 홍보에 대한 불만의 대책으로 올해 첫 모집을 받은 서경대 홍보단 역시 저조한 지원율로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늘리기도 했다.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을 비단 지금 세대의 개인주의라 결론지을 수는 없다. 예전 서경대신문(전 국제대학보)을 읽어보니 ‘학우들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공동체 의식 및 주체성을 결여하는 여전하다’는 기사가 있었다. 개교 기념행사인 청야제에서 학우들의 참여 저조로 개최되지 못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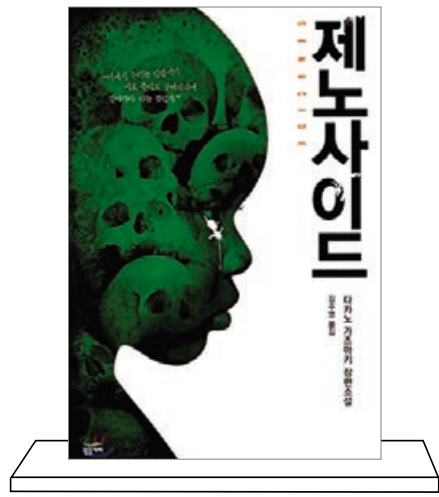
학사구조 개편에 찬성하는 학우들, 서명운동에 참여한 1,884명의 학우들, 그리고 간담회에 참여한 약 70명의 학우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우들에게 묻고 싶다. 본인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해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편하지는 몰라도, 그러한 태도로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다.

물론 학우들의 입장이 이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가 이름을 걸고 어떤 주장을 펼치고자 마음을 먹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차라리 익명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할 말이나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이 변하길 원하면서, 침묵하고만 있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김나연 기자 (nyun0130@skuniv.ac.kr)

오늘의 책

두려운 미지를 마주하는 인류의 자세 - 제노사이드 _다카노 가즈아키



▲ 출처 : 교보문고

독자들은 '제노사이드'가 무엇인지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인종·민족·종교 등을 이유로 저지르는 계획적인 대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 우리는 여태껏 수많은 제노사이드를 보았다. 약자라는 이유로 잔혹하게 몰살당했던 식민지 시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제노사이드의 아픔을 깊이 새기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제노사이드를 종교·미국·일본을 넘나들며, 현인류보다 진화한 새로운 생명체의 출현에 마주하는 인간의 모습에 풀어낸 SF 소설이다. 한 편의 영화

를 본 것만 같은 뛰어난 흡입력은 단숨에 책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지른 악행을 바로 마주하고 비판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번즈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 공화국 동부 열대 우림에 신종 생물이 출현했다는 보고를 받고 인류 종말의 위협을 느낀다. 이를 몰살하기 위해 꾸린 용병단은 신인류(누스)를 제거할 목적으로 콩고 민주 공화국에 잠입했으나 번즈에 의해 누스와 함께 처리될 운명에 처하자 되려 누스를 지키게 된다. 번즈의 감시를 피해 콩고에서 탈출하기로 한 용병단과 누스, 이들을 돕는 또 다른 조력자인 일본인 고가 겐토와 한국인 이정훈이 있다. 초인류 누스를 제거하려는 미국 정부와 지키려는 자들, 미지의 생명체를 대하는 상반된 인간의 모습이 긴박하게 전개된다. 태어난 지 3년이 채 안 된 누스의 지능은 인간과 비교하기 우스울 정도로 월등하다. 미국 정부를 피해 도망치는 와중에도 이미 누스는 그들의 작전을 간파한 지 오래다. '다른 종'을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의 태도는 오히려 '다른 종'에 의해 도태될 위험에 처한다. 이토록 인간이 미지의 존재를 제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보다 월등한 초인류가 현인류를 뛰어넘고 되려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누스는 현인류에 아무런 반감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어쩌면 정말 누스가 인류 종말을 야기할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책을 읽는 내내 누스가 무사히 콩고에서 탈출할 수 있길 바랐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별에는 인간이라는 괴물이 있어." 이질적 존재에 두려움을 느껴 말살하려는 추악한 인간과 한 생명체를 살리려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인간. 약자를 돕는 작은 선행이 그들에겐 큰 희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만 같다. SF 소설은 터무니없는 상상에서 비롯된 허구의 이야기일 뿐이란 생각이 든다면 <제노사이드>로 이 장르를 처음 접해보는 걸 추천한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필히 인간의 잔혹성에 대해 재고해 보게 될 것이다. 작가는 인간이 왜 서로 죽이며 살아야만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한다. 모든 생물 중 인간만이 같은 종끼리 제노사이드를 행하는 유일한 동물이라 한다. 권력을 쥔 쪽이 그렇지 않은 쪽을 지배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건 아닐까?

신가는 수습기자 (yulyull1214@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무채색 감정에 원시적 생명력을 - 에드바르 뭉크: 비온드 더 스크림 (Beyond the Scream)



"내 생각엔..." "이 그림은... 같지 않아?" "... 인가 봐." 넓고 어두운 전시장 곳곳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림이 참 멋있다는 단순한 감상부터 개인적인 추측과 비유들이 난무한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2전시실에서는 '에드바르 뭉크: 비온드 더 스크림' 전시가 열렸다. 서울신문이 주최한 이번 전시는 노르웨이의 화가이자 판화가인 에드바르 뭉크(Edvard Munch, 1863~1944)의 작품 140점을 소개한다. 아시아 최대 규모 전시라는 점과 함께 뭉크 전문 큐레이터가 개인 소장품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해 작품들을 모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전시의 주인공인 뭉크는 생전에도 독보적이고 강렬한 화풍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모진 풍파가 가득했다. 어린 시절에 결핵으로 어머니와 누이를 잃었고 그 후에도 동생들과 아버지의 연이은 우울증과 죽음을 목도해야 했다.

본인 역시도 한평생 병약했고, 화가로 잘 나가던 무렵엔 나치가 퇴폐예술이란 이유로 그의 작품을 몰수하기도 했다. 그런 그의 내면에는 늘 우울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잔존했다. 이러한 정서는 그의 화풍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전시는 총 14개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다. 초기 뭉크의 자연주의 화풍이 담긴 풍경화부터 모더니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자화상과 누드 등이 유화, 판화, 드로잉 등 다채로운 기법을 통해 그려졌다. 차근차근 걸음을 옮기다 보면 뭉크의 대표작 '절규'가 눈에 들어온다. 전시의 대미를 장식할 줄 알았는데 웬걸, 전시 초반부에 내걸려 있다. '비온드 더 스크림'. 본 전시는 뭉크의 '절규' 그 너머를 조망하고자 한다. 단순히 '절규' 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뭉크의 작품 세계를 그의 생애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아우르는 것이 이 전시의 취지다. 다른 화가들에게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역동적인 붓 자국, 강렬한 색채와 왜곡된 형태들은 전시에 방문한 모든 이의 눈길을 끌어당긴다. 아빠 허리에다 채 달지 않는 어린아이부터 외국인 관광객, 나이 지긋한 어른들까지, 모두 저마다의 깊이를 가진 눈동자로 그림을 살핀다. 때로는 쓸쓸함에 공감하는 눈빛, 때로는 경탄에 가득 찬 눈빛이다. 시대와 나이, 인종을 넘어 뭉크의 작품이 이토록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객관적 형태 묘사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뭉크의 손끝이 닿은 모든 곳엔 진솔한 감정과 개인적 서사가 담겨 있다. 붓 터치 하나하나마저도 일련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에 두려움과 우울을 말하는 작품일지라도 그의 작품엔 생명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극히 일상적이지만 아름답거나 탁해 드러내기 힘든 감정들의 진가를 알았던 그는 이렇게 말한다. "더는 남자가 책을 읽고 여자가 뜨개질하는 장면을 그리지는 않을 것이다. 숨 쉬고, 느끼고, 고통받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인간을 그릴 것이다"라고.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장소

탁 트인 자연을 바라보며 즐기는 경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 방화수류정



무더운 여름,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 속에서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든다. 푸르른 연못과 버드나무, 옛 산성이 공존해 전통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장소를 소개한다. 수원 화성 성곽길에 위치한 방화수류정은 조선 후기 건립된 수원 화성 네 개의 각루 중 하나인 동북각루의 이름이다. 수원천이 흐르는 화성 화홍문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며, 각루는 용두 바위 언덕 위 벼랑에 자리하고 있다. 본래 군사시설의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아름다운 경관으로 화성 행차 시

정조가 휴식을 취하는 정자로도 겸했다고 한다.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 노닌다"라는 뜻의 방화수류정은 그 이름에 걸맞게 수려한 자연 풍경을 자랑한다. 입구인 북암문을 들어서면 연잎이 가득한 둥근 연못 '용연'이 우리를 반겨 준다. 용연에는 연꽃을 뒤덮은 수많은 연잎과 한가운데 놓인 작은 섬, 물길을 가르며 유유히 떠다니는 오리 등 볼거리가 많다. 연못 바깥을 둘러싼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성곽을 바라보면, 연못에 각루와 나무들이 비쳐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낮에 아름다운 풍경은 밤에도 아름다운 법이다. 방화수류정의 진가는 해 질 녘 노을이 질 때 드러난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해가 질 때 용연이 붉은 빛으로 가득 차 윤슬이 아름답게 비친다. 노을이 완전히 저어두워지면 색색깔의 조명이 성곽과 나무, 갈대 사이를 비춘다. 필자는 일몰을 보기 위해 저녁 시간에 방문했는데, 날이 좋지

않아 아쉽게도 노을빛 풍경은 보지 못했지만 멋진 야경만은 실컷 관람했다. 이처럼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는 방화수류정은 최근 떠오르는 피크닉 명소다. 특유의 자연 경관 덕에 어느 위치에서 찍어도 감성적인 샷을 건질 수 있다. 수원 행궁동 일대가 드라마 촬영지와 카페, 맛집 등으로 유명해지면서 방화수류정 또한 명달아 주목받고 있다. 화성 행궁 일대와 광고저서구까지 노니는 '플라잉수원'이라는 열기구도 운행하니,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추천한다. 성곽길을 걸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행궁동 일대를 바라다보면,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루 정도 여유가 생긴다면 '수원 화성의 꽃', 방화수류정에 방문해 지친 일상을 치유해 보자.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 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92번길 44-6 방화수류정
·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늘의 영화

상상 속 이상행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 루비 스팅크스 (2012)



▲ 출처 : 무비데이터베이스

어린 나이에 유명 작가 반열에 오른 천재, '캘빈'. 하지만 그는 가족과도 내외하고 새로운 소설을 한 글자도 쓰지 못할 정도로 방향 중이다. 어느 날, 그는 한 여인에 관한 꿈을 꾸게 된다. 그녀는 그가 생각하

는 이상형 그 자체였고, 그는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아 '루비 스팅크스'란 인물을 창조해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여느 때와 같이 글을 쓰다 잠든 캘빈, 그런 그를 낯선 목소리가 깨우는데, 꿈에서 봤던 루비가 그 모습 그대로 실재해 있는 것이다. 패닉에 빠진 캘빈은 곧 소설을 수정하면 루비가 그대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상상 속의 이상형이 살아 움직이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이상형을 마주한 캘빈은 곧바로 루비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상상 속의 이상형이 실재하면 어떻게 하는 상상은 누구나 으레 해보는 상상일 것이다. 그리고 상상 속의 주인공이 자신과 천생연분일 것이라고 근거 없이 믿어 보기도 한다. <루비 스팅크스>는 이러한 상상에 대한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다. 캘빈과 루비 역으로 분한 폴 다노와 조 카잔이 실제 연인 사이이기 때문일까, 캘빈과 루비의 사랑스러운 이야기는 보는 이를 절로 흐뭇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영화는 발칙한 우화이기도 하다. 마법 같은 기적에도 잠시, 대가 없이 이뤄진 기적은 '한여름밤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짚기 때문이다. 한순간에 나타

난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장 중요하지만 애써 무시하는 사실을 직시하며 이를 의식하는 캘빈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종국에 캘빈이 소설을 수정해 가며 루비를 구축하려는 모습은 연인에게 과하게 의존적인 태도에 대한 성찰과 더 나아가 연인 관계 자체에 대한 통찰로도 이어진다. 캘빈과 루비처럼 마법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한여름밤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헤어짐으로 끝난 관계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돌아켜 보았을 때 모두 한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캘빈과 루비가 겪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한여름밤의 꿈이 상상도 한동안 이러한 기억 속에 젖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감상에 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통해 당신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는 것이다. 캘빈이 루비를 통해 깨우친 것이 무엇인지 재고해 보며 당신의 한여름밤의 꿈을 추억하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 바란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yhyu@naver.com)

오늘의 음악

마냥 찬란하기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대학생들에게 방학이란 무엇일까. 두 달간의 느긋한 자유, 혹은 미래를 위한 발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유독 방학에 무력감을 느낀다. 정신없이 몰입하던 한 학기가 지나가고 갑자기 주어진 공백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해진다. 남들을 따라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여행을 다니는 와중에도 이 길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모두가 잠든 밤 침대에 누워 풀베레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 깊이 감춰뒀던 걱정과 불안이 두동살 떠오른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이상한 게 아니다. 누구나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초조해한다. 그저 그런 나를 그 모습 그대로 감싸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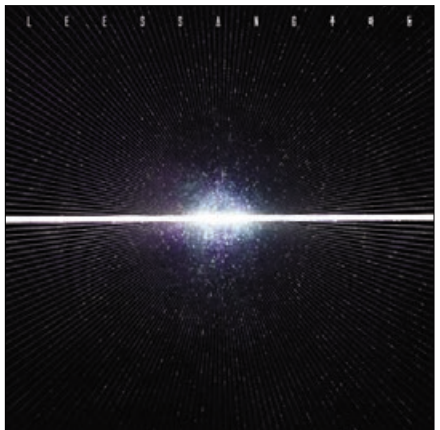
♪ <야간비행> - 에이티즈

"이 끝에 우린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나 단지 난 겨우 나이기도 벅찬 나인데"



♪ <소음 속에 사라진> - 라식

"소음 속에 사라져 가 숨기고 감추려 사라지고 잊혀지지 않기로 해 다시는 이제는 누구에게도"



♪ <주마등> - 리쌍

"정신 없이 살았지 하나 돌씩 사라진 많은 사랑과 내 꿈 하나 이뤄지지 못했던 그 모든 걸 껴안으며"

우리는 무조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걸까. 그냥 나로 살면 안 되는 걸까. 이 노래를 듣는 날의 기분에 따라 가사가 다르게 해석된다. 가사가 '나' 이기도 벅찬 '나' 로 느껴지는 날이면 나도 날 잘 모르겠다. 이런 내가 스스로 한심하기도 하다. '나' 이기도 벅찬 '나이' 로 들릴 때도 있다. 우린 성인이지만 아직 어리다. 해마다 새로 주어지는 숫자를 따라가다가 벅차 나이에 맞게 살라는 말이 부담스럽기도 하다. 조금만 천천히 해 볼게요, 저도 제 인생은 처음이어서요.

각자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 가는 존재란 무엇일까. 각스는 소리 내며 잊혀 가는 것들이 두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잊혀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리 내려는 그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낀다. 흔적 없이 소멸되기보다 점 하나라도 남기기 위해 발악하는 그 모습이 눈물 나게 간절하다. 필자도 소리를 낼 것이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여기 내가 있다고 알릴 것이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오늘의 스포츠

모든 것은 한국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 선임...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7월 8일 홍명보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앞서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만 경질된 이후 약 5개월 만의 정식 감독 선임이다. 당시 클린스만은 부진한 성적 및 선수단 불화로 인해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경질됐다. 이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3월, 6월에 진행된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들을 각각 황선홍 감독 대행,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로 치렀다. 약 5개월가량 제대로 된 감독 선임을 하지 못하고 경기를 치른 것이다. 게다가 이로 인해 U23 대표팀이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등의 큰 손실을 얻었다. 그사이 수많은 외국인 감독의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결국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었다. 그러던 와중 당시 울산 HD FC 감독이던 홍명보가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이런 선택에 여론은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컸다. 감독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으며, 한국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의견도 속출했다. 이에 더해 홍명보의 갈대 같은 태도 바꾸기도 한몫했다. 그는 본인이 감독 후보로 논의되는 와중에도 팬들에게 "내 입장은 항상 같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논란을 일축했었기 때문이다. 또한 홍명보는 지난 6월 30일,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및 이후의 일을 생각해 보면 축협이 과연 얼마나 학습된 상태인지 묻고 싶다"며 축협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풀연 사퇴한 상황에 대해 "이 시점에 감독 선임은 맡은 위원장이 사퇴한 것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협회에서 그 누구도 정 위원장을 지원하지 않아 혼자 고립됐을 것"이라 말했다. 덧붙여 축협에 대해 "위원장과 감독이 몇 번 바뀌어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는 조직"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축협에 강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던 그가 감독에 선임됐다는 소식이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정 위원장의 사퇴 후 감독 선임 절차를

맡게 된 이임성 축협 기술총괄이사가 브리핑을 열었다. 그러나 질문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수술하기 바빴다는 국민의 비판이 이어졌다. 유명 축구인들의 폭로 및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박주호는 "지난 5개월이 너무 어렵고, 안타깝다"며 "정말 허무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3월부터 전력강화위원회(이하 전강위) 위원으로 참여해 외국인 감독 추천 작업을 맡은 바 있다.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은 "이번만큼은 축협이 진짜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 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 국가대표 박지성은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홍명보의 계약 기간은 2027 초에 열리는 아시아컵까지로, 약 2년 6개월이다. 이 이사는 2027년 아시아컵까지 기간을 정한 이유로 "단기간 결과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핵심인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홍명보호가 과연 성공적인 결과로 막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